

## [보도자료] 쿠팡, 올해 첫 물류센터 채용 나선다 수원 대구서 릴레이 일자리 박람회

2026. 3. 19.



The poster features a dark background with a blue rocket ship launching upwards. The text is primarily in white and yellow. At the top right, it says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The main title is '2026.03 지역 채용 박람회' in large, bold letters. Below the title, it lists the roles: '현장 물류사원 / 지게차 사원 / 현장 관리자'. The event dates are '3월 24일(화)' and '3월 26일(목)', both from 1:00PM to 4:00PM. The locations are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광고홀]' and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 At the bottom, a yellow-bordered box contains the text '채용 면접 / 채용 상담 / 경품 행사'.

- CFS, 2026 첫 채용박람회 3월 24일 수원, 26일 대구 개최
- 수도권 남부 및 영남권 청년 인재 확보 현장물류사원, 지게차사원, 물류관리자 등 모집

2026. 03. 19.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6년 첫 채용박람회에 나선다. CFS는 오는 24일과 26일 각각 수원과 대구에서 채용 행사를 개최하고 현장물류사원 및 물류관리자 모집을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3월 24일에는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채용 박람회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광주, 곤지암, 금왕, 동탄, 마장, 시흥, 안성, 용인, 이천, 천안, 청주, 평택 등 수도권 남부 지역 20여 개 풀필먼트센터가 대거 참여해 물류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어 3월 26일에는 대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채용 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영남권 채용은 쿠팡 로켓프레시 서비스 확대에 따라 늘어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와 경산 지역 5개 풀필먼트센터가 참여해 구직자들을 만난다.

이번 채용의 모집 분야는 입고, 출고, 재고·반품 검수, 지게차 운행, 물류 현장관리자 등 다양하다. 특히,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취업 상담부터 현장 면접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채용'으로 운영되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사람인, 알바몬, 알바천국, 잡코리아 등 주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채용박람회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박수현 CFS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새롭게 시작하는 봄의 기운을 맞아 2026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첫 채용박람회를 수원과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며 “올해도 청년 인재를 포함한 많은 구직자들이 쿠팡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채용박람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FS는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셔틀버스를 이용한 편리한 출퇴근 지원은 물론, 쿠팡캐시백, 임직원 및 직계 가족 실손보험 무료 가입, 사이버대학교 학업 지원 등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